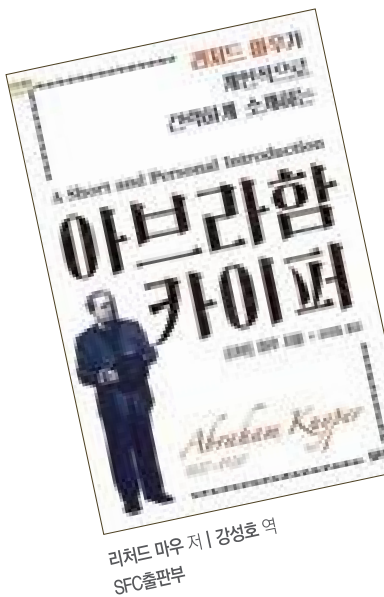


서평 『아브라함 카이퍼』

익숙하지만 낯설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감동하고 열광했지만, 무엇으로 흥분했고 어떤 잔상으로 기억하는지 알아 보면 각인각색으로 다양한 지점에 머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최대의 지지를 받아 자리에 오른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난하는 경우, 이상을 바라고 지지한 각 개인의 온도 차이는 피선거권자의 거리감 못지않다. 이론적으로는 덕장(德將)을 최고로 말한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야 덕장 모신 것을 감사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불안을 느낄 때면 ‘용장(勇將) 아닌 것도 장수냐?’고 기본 자질을 들먹인다.

어쩌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원하는 것만 보기를 바라는 감각과 인지의 구조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말 만큼 쉽지 않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 교실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와 5분 정도 전달 사항을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이 바라보고 기억하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거기에 덧붙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시비나 선호를 묻게 되면 생각 이상의 다양한 답들이 나온다. 다양한 시각과 생각, 감정은 다르다는 이유로 반목을 낳기도 한다.



리처드 마우 저 | 강성호 역
SFC출판부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우리들이 긴장하며 좋아하는 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가두려던 삶과 신앙을 견고한 복음으로 자유롭게 풀어냈다. 신학자이며 정치가, 교육자, 언론인 등 입체적인 삶을 산 아브라함 카이퍼는 파격적인 행보에 비해 복음주의자로 기억된다. 그의 용감한 활동과 깊은 통찰은 ‘이 시점에 한국에 카이퍼가 있다면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다. 인터넷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개독교라는 표현이 일상적이다. 이런저런 일어날 법한 문제와 모습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구분 없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한다. 우리가 믿는 것이 행동의 선함

이나 말의 유능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지탄을 받을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예요.”라는 궁색한 변명이 더 슬프다. 선행으로 구원받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일단락하자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모범적이며 윤리적이어서 할 충분한 이유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어느 한 구석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명하다.

어릴 때 교회 장로님은 강렬한 목소리로 명령하시곤 했다.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

머지 시간에는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겨루며 살아 내야 한다. 주일에 절대 다른 약속 하지 말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에 갈 때에야 교회 문을 나서라.” 당신은 주일 새벽이면 일주일 동안 묻은 세상의 때를 털어 내느라 구두 바닥 흠까지 박박 씻어 내고 교회로 향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다. 저녁 기도와 헤어질 때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결연함으로 굳은 악수를 힘껏 하시곤 했다. 추상같이 느껴져 교회에 들어서면 실내에서 하루 종일 맴돌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면 마치 고향을 떠나는 서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울렁거렸다. 그렇게 선과 악, 빛과 어둠, 교회와 세상,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대립과 투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다. 또 그 치열한 접경에 있지 않으려는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교회와 성도라는 거룩한 구분이 감격스러워 경건을 기꺼이 지키려는 선택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신앙 상담이곤 했다.



유선덕 국민대학교 문화학 박사, 국민대 문화교차학연구소 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한국기업상담센터 대표, 일터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만족을 위한 문화사역으로 상담, 교육, 연구 활동 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은총과 문화사명으로 이러한 우리의 갈등과 소모를 해결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으며, 온 천지에 편만한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하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함으로 누구보다 창의적인 삶을 살았다.

이 책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장은 신학과 문화에 관련된 카이퍼 시각 개관이고, 2장은 변혁적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합한 메시지로서 카이퍼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리처드 마우를 지나쳐 아브라함 카이퍼만을 말하기는 어렵다. 리처드 마우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풀러 신학교 총장이었다.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풀러에서 여전히 「믿음과 공적인 삶」을 강의하고 있다. 리처드 마우에 대한 뚜렷하고도 분명한 논란의 증거를 차치하고, 그가 왜 굳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가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서문에서 마우는 분명하게 밝혔다.



카이퍼의 확고한 칼빈주의에서 나는 내가 찾아 헤메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망이었다. 그 전망은 사적인 것이 되어버린 복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공적인 제자도에 접근하는 방식들의 사이로, 나로 하여금 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 전망을 찾은 이후로 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애썼다. (12쪽)

결국 마우가 말하고 싶은 자리에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마우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상상해보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전향했다. 그러한 획

기적인 지점에 피에쳐 발투스라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었다. 카이퍼는 그의 권위를 거부하던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그들과 맞서지 않으려 노력했다. 젊은 목회자가 취했던 훌륭한 태도와 행동덕분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가 모든 것에 완벽하게 옳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견고함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기에 영역주권과 문화 신학을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다형성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명은 근대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희망이 되었다. 다양함은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상의 빌미이기도 하다는 마우의 지적은 예리하다. 놀랍게도 마우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어떤 ‘주의(-ism)’의 핵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이상승배에 빠져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은 마우의 영리하고 세련된 표현이 가득하다.

마우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편하게 아브라함 카이퍼를 소개한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족적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의 마땅한 의미와 가치를 뜨겁게 확인시켜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말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충만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보다 너그럽고 온유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왜 아니겠는가? 일반은총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특별은총만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생, 만물의 존재를 보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는 그리스도인이 매정함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힘 있게 말한다.

마우는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깊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과 주님께 문화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

아야 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서문에서 밝힌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타당성을 찾아 의뢰하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신학으로 끝맺었다. 그런데 문화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세기의 관점에서 문화는 문치교화(文治敎化)나 경작(culture)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중국 고전에서 문화의 ‘문’은 文과 紋이었으며, 사실 구분없이 사용되었다. 본래적인 의미로 보자면 있는 그대로의 표현과 고유함을 나타내는 紋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 culture가 라틴어 colore에서 출발하여 agriculture에서 파생되었다면 미묘하게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문화는 외부에 있는 최상의 어떤 것을 지향하기보다 창조 본연의 모습의 다형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근대의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조짐에 대해 분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문화사명을 주장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구원받은 우리가 창조로의 회복에 열심이어야 함을 말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문화가 중요한 코드이며 경쟁력이고 가치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에 있다. 어딘가에 있는 고급스럽고 강력한 문화를 지향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제대로 있어야 할 것이다. 구원의 감격이야말로 문화사명이며 문화야말로 하나님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우가 염려하며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인용하며 권면하듯 우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매정하고 교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야말로 각자 타고난 성정(性情)대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이며 사명 아닐까 생각한다. 